세계 겨울 스포츠 축제…내일 이탈리아 밀라노서 '팡파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서 개회식…8개 종목 17일간 열전

한국, 금 3개·톱10 목표…쇼트트랙·스노보드 등 활약 기대

지구촌 겨울 스포츠 대축제가 2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역대 25번째 대회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한국시간 7일 오전 4시(현지시간 6일 오후 8시)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을 열고 1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 것은 20년 만이다. 이곳에서는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에 이어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올림픽은 400㎞ 떨어진 이탈리아 두 도시에서 분산돼 열리게 된다. 경제 수도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밀라노에서는 빙상과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진다. 또 대회 명칭에 함께 이름을 올린 코르티나담페초에서는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썰매가 진행된다. 양 도시 사이에 있는 발텔리나 클러스터·발디피엠메 클러스터에서는 스키, 스노보드 종목이 나뉘어 개최된다.

단일 올림픽 공식 명칭에 두 개의 지명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29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116개의 금메달을 걸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선수 71명을 포함한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정했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 톱10에 진입한 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7위(금 5·은 8·동 4)가 마지막이다. 최근 대회였던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14위에 머물렀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5위(금 6·은 6·동 2)다.

이번 대회 한국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종목은 '효자 종목' 빙상 쇼트트랙과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다.

한국의 '골든 데이'로 꼽히는 21일에는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과 남자 대표팀 5000m 계주 결승이 열린다. 여자 1500m에서는 최민정이 김길리, 노도희와 함께 출전해 평창, 베이징에 이어 이 종목 3연패를 노린다. 13일에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첫 메달 기대 종목은 8일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이상호가 출전한다.

10일 시작되는 쇼트트랙에서는 한국의 첫 금메달 가능성이 있다. 이날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최민정, 황대헌 등이 팀을 이끌 예정이다.

12일에는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정대윤이 한국의 스키 종목 첫 메달을 조준한다. 13일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이 열린다.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이 이 종목 세계 최강 윌리엄 단지누(캐나다)와 경쟁한다.

14일에는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차준환이 나선다. 같은 날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선 이채운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스켈레톤 남자 국가대표 정승기도 깜짝 메달을 노린다.

15일은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이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은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3회 연속 금메달을 바라본다. 같은 날 열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는 김준호가 출전한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간판 김민선과 이나현은 16일 여자 500m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바라본다. 같은 날 쇼트트랙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는 여자 1000m에 나선다.

18일에는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 출전하는 김진수, 김형근이 메달 추가로 한국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9일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힘을 쏟는다. 한국은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일에는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이 펼쳐진다. 신지아가 메달 후보다.

한국의 마지막 메달은 22일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정재원이 금메달을 향한 질주를 선보인다. 컬링 여자 대표팀 경기도청(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은 이날 결승 진출을 꿈꾼다.

송하종 기자 hajong2@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4일(현지시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페퍼스, 현대건설 꺾고 '10승' 고지 점령

세트스코어 3-0 셧아웃 승…시즌 전적 4승 1패 압도

조이 30득점 맹활약…시마무라·박은서 등 힘 보태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안방에서 10승 고지를 밟았다.

AI페퍼스는 지난 4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30-28 28-26 25-21)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는 1·2세트 모두 듀스 접전이 펼쳐졌으나, AI페퍼스의 뒷심이 더 강했다.

이번 승리로 AI페퍼스는 10승 15패를 기록, 승점 30점 안착에 성공하며 리그 6위 자리를 유지했다. 또 올 시즌 현대건설과의 상대전적을 4승 1패로 늘리면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AI페퍼스는 이날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30득점(공격성공률 50.98%)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아시아쿼터 시마무라도 16득점(공격성공률 57.14%)을 기록하며 살아난 공격력을 뽐냈다, 여기에 박은서가 10득점(공격성공률 34.48%)을 뽑아내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장소연 감독은 박정아·박은서(아웃사이드 히터), 조이(아포짓 스파이커), 하혜진·시마무라(미들블로커), 이원정(세터), 한다혜(리베로)와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1세트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3-3 상황 AI페퍼스가 연속 팀 득점 이후 시마무라의 서브에이스가 터지면서 7-3으로 리드를 잡았다. 박은서 퀵오픈 이후에는 조이의 블로킹까지 나오면서 크게 앞섰다. 하지만 곧 위기를 맞았다. 15-9에서 범실과 리시브 실패로 상대에게 3점을 내준 뒤 크게 흔들렸다. 19-18에서는 상대 자스티스의 오픈이 적중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28-28까지 듀스 접전이 펼쳐졌고, 상대 포히트와 조이의 백어택이 성공하면서 AI페퍼스가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9-9에서 상대 김다인의 네트 터치와 카리 오픈 아웃 이후 하혜진이 블로킹을 만들면서 AI페퍼스가 앞서나갔다. 여기에 조이가 오픈과 블로킹으로 3연속 득점에 성공, 경기는 15-9가 됐다. 그러나 상대는 카리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고, 19-19로 균형을 맞췄다. AI페퍼스는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다시 위기를 맞는 듯 했으나 24-24 듀스를 만들었다. 26-26까지 이어진 승부. 조이가 연속 오픈을 폭발시키면서 2세트까지 따냈다.

3세트 현대건설이 범실로 자멸했다.

상대는 세트 초반 3-5로 앞섰으나 연이은 실책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AI페퍼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시마무라 이동 공격, 박은서 오픈 등으로 8-6 역전에 성공했다. 23-21까지 2점차 리드를 유지한 AI페퍼스는 시마무라의 시간차, 조이의 오픈으로 게임을 마무리 지었다.

장소연 감독은 경기 후 "팀이 중간 긴 연패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든 경기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며 "이번 경기 승리로 10승을 달성했는데, 앞으로도 매경기 집중해서 좋은 결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청 우슈팀, 순천SOS어린이마을에 따뜻한 나눔

복지시설에 생활용품 전달

선수 재능기부 등 지역상생

순천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무료 우슈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남도청 우슈팀.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청 우슈팀은 지난 4일 순천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기부는 선수단과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동계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받아온 격려와 응원,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선수단과 지도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팀의 결속력은 물론, 스포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라면 등 생활용품으로 전달된 기부 물품은 형편이 어려워 1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순천SOS어린이마을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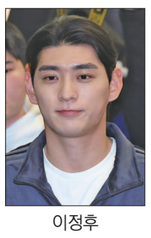
특히 전남도청 우슈팀과 전남우슈협회 소속 지도자들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순천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무료 우슈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순천SOS어린이마을과 협의를 거쳐 2026년에도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윤병용 전남우슈협회 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가 한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도체육회 역시 체육을 매개로 한 사회공헌과 생활체육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야구 WBC 대표팀 선수 명단 오늘 발표

한국계 위트컴 등 발탁 가능…이정후·김도영 유력



이정후

김도영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 선수 명단이 6일 발표된다.

KBO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WBC 대표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3월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 C조 경기에 나선다.

C조에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호주, 체코가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을 겨루는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일본이나 대만 중 최소한 한 팀을 이겨야 8강이 열리는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KBO는 이달 중순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김하성과 송성문이 부상으로 대표팀 합류가 불발된 가운데 이정후와 김혜성이 대표팀의 주축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고우석이나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한 김도영 등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계 선수들의 대표팀 합류도 이날 명단 발표의 관심사다. 한국계 내야수 셰이 위트컴(휴스턴 애스트로스)과 투수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한국 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외야와 2루 수비 등이 가능한 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역시 류지현 감독이 대표팀 발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